

상월선원, 발심·정진·기도처로 위상 확대

11월30일, 세 번째 토요일정진법회 신도회·일반 불자 등 400명 동참 선원펜스에는 1만여 소원등 가득 '원만회향'서 '사업변장' 등 눈길



상월선원 주변을 둘러싼 흰색 펜스에는 이곳을 찾은 불자들의 발원이 담긴 1만여개의 등이 가득했다.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대발심에 불자들의 원력이 속속 결집되고 있다. 동안거결제가 한창인 위례 상월선원은 사부대중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대원력의 동행을 실현하는 발심의 도량이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정진의 공간이며, 저마다의 발원을 기원하는 기도처로 위상이 커지고 있다.

11월30일 상월선원 아래 마련된 임시 법당에서는 세 번째 토요일정진법회가 봉행됐다. 오후 2시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으로 시작된 토요일정진법회는 석가모니불 정근 및 108배, 참선, 탑돌이 등으로 이어졌고,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동안거 전막결사에 임한 9명 스님들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 신도회와 동국대 정각원,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을 비롯해 상월선원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불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정진 중인 스님들의 원력에 힘을 더했다.

이날 어머니와 함께 상월선원을 찾은 유선혜 불자는 등에 '소원성취' 네 자를 적어 펜스에 달았다. 남양주 수중사 신도인 그는 "인론과 유튜브를 통해 상월선원 소식을 접하고 궁금해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게 됐고, 불자들의 정진 열기에 이끌려 동참하게 됐다"며 "스님들의 원력이 성취돼 한국불교가 새로워지고, 상월선원을 찾은 인연으로 나와 가족은 물론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의 간절한 발원과 정진, 기도의 소리는 주변

원성취"를 발원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덕숙 불자는 "불자로서 한국불교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한다면 더 바랄 게 있느냐"며 "스님들 모두 무탈하게 회향을 맞이하고, 결사에 임하며 세운 큰 원력이 꽃 피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덕사 신도 한수현 불자는 "대덕사 신도회가 이곳에서 봉사활동 중이라 시간이 날 때마다 찾고 있다"며 "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들고 비록 임시법당이지만 사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정진 중인 스님들의 건강과 원만회향을 발원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바람도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 됐

다"고 상월선원의 변화를 설명했다. 상월선원 외화대중 운성이 동국대 총장은 "상월선원 전막결사는 새롭게 사회를 밝히고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대작불사"라며 "9명 스님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불교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토요일정진법회에 동참해 사회와 불교를 새롭게 하는 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선원은 12월6일부터 스님들의 폐문정진을 경험할 수 있는 '제험관' 운영을 시작했다. 위례=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마음을 다스리는~'

모과나무 '송광사 사찰숲' 우수상 12월18일 한국불교기념관서 시상



또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는 세조의 절절한 사모곡과 사부곡, 자식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양이 되기 위해 저질렀던 잘못의 참회로 가득

2019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작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엔북스, 사진이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송광사 사찰숲'(전영우, 모과나무)과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정진원, 조계종출판사) 등 2종이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심사위원회는 27개 출판사에서 출품한 83종의 불서를 심사, 11월26일 '2019년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도서를 발표했다.

대상 수상작인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은 20년이 넘는 수행 경력에 불교 교학까지 겸비한 강명희 교수가 초심자에게 꼭 필요한 수행법만 따로 가려 뽑고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12가지 명상법으로 정리함으로써, 1년 동안 한 달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몸과 감정, 마음과 관념을 다스려 나를 바꿀 수 있는 명상 안내서다.

우수상을 수상한 '송광사 사찰숲'은 국내 유일의 사찰 산림기록인 '조계산 송광사사교'를 통해 조선시대 국가지정 산림의 관리·운영 실태를 밝힌 책으로, 천연을 준비할 사찰숲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자금을 쓰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한 '월인석보' 서문부터 석가모니부처님의 과거세 연등불 시절 선해와 구이 이야기,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시작되는 인간 세계 이야기 등이 광대한 스케일로 촘촘히 실려 있다.

대상과 우수상에 이어 수향변역상에는 '열반종요'(원호 저, 박태원 옮김, 세창출판사), '부다북학술상'에는 '백곡 처능, 조선불교 절폐에 맞서다'(지현 스님, 조계종출판사)가 각각 선정 됐으며 '박범훈의 불교음악여행'(박범훈, 불교신문사), '버리는 불교가 궁금해'(변택주 지음, 권용득 그림, 불광출판사),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일지 스님, 어의운 해), '영산재'(법현 스님, 운주사),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김호성, 동국대출판부)이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됐다.

'2019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은 12월1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심장섭 전문위원 sj88@beopbo.com

"평택 수도사·원정마을 공존공동체 돼야"

수도사는 한국사찰 격식 조성 생태공원 등 문화적 공간 필요

원효대사 오도성지로 알려진 평택 수도사와 인근 마을인 원정마을이 공존공동체로 거듭나야 지역발전은 이룰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11월30일 경내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에서 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콘텐츠로서 원효대사의 가치, 구도순례길 조성, 종합예술공간으로서 원효마을을 모색했던 지난해 학술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학술대회는 수도사와 원정마을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조 정식 동국대 교수는 '수도사와 원정마을을 종합발전 방안' 발제에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수도사와 원정리는 양자 공존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수도사는 한국적 사찰로서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하고 원정리는 한국적 마을 조성의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해야 한다"며 "깨달음체험관과 해수관음보살상 등 사찰 구성 요소들이 사찰보다 커서 전체적인 격에 고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사 출입구를 조절해 절에 오는 순간 사찰의 영역성을 느끼도록 하고 회랑을 뒤 독립적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원정마을은 담장과 진입로 개선으로 마을경관을 제고하는 등 사찰과 마을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정마을 이장들도 공감을 표했다. 김석진 원정6리 이장은 "수도사와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이 있지만 잠깐 보고 간다"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원정리 주민뿐 아니라 깨달음체험관을 찾는 방문객과 평택시민 모두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성 기자 time@beopbo.com

저친면 갈아낸 자리, 마음 소리 따라 '물들다'

김정은 작가 옷칠회화전 개최 12월18-28일 서울 나무아트

전통기법 중 하나인 옷칠을 차용해 회화 작업의 폭을 넓혀온 김정은 작가의 개인전 '물들다(absorb)'가 열린다. 12월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나무아트에서 계속되는 이 자리에는 옷칠회화 작품 10여점이 전시된다. 옷칠회는 기원전부터 활용됐던 옷칠에서 파생된 새로운 화종으로, 전통공예의

고정관념을 깨고 한발 더 나아가 순수 회화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장르다. 옷칠은 화학물감과 달리 생명력을 지닌 천연 물질로서 그냥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작품으로 다루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뛰어난 역량이 요구된다. 그림을 그린 후 칠장에서 적정 습도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섬세하고 까다롭게 작품을 말려야 하고, 색을 얹을 때는 앞서 말린 옷칠을 사포질해야 새로운 색을 결합시킬 수 있다. 때문에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이상 말리고 갈아내고

뭫칠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친 면을 갈아내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 색을 더하며 그려낸 작품은 일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마음 속에 담긴 이미지와 기억을 새롭게 보여준다. 문득 하늘을 올려보다 미세한지르기 가득 한 대기에서 하얗게 빛나는 태양을 보았던 날, 하나의 물성이 보이는이와 보이는이 서있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서 태양을 향한 붓을 들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을 붓끝으로 흘러내 찰나의



'absorb01', 90×90×4.6cm, 2019년.

단면으로 표현하기에 나의 작품 활동은 삶의 중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부처님 4대성지 및 기원정사 8일

기원정사 / 룬비니 / 쿠시나가라 / 바라나시 / 부다가야
인솔자 동행, 한식제공, 노움션
* 출발문의 상담요망

또하나의 세계사 실�크로드 정통 10일 - 서안에서 천산까지

난주 / 돈황 / 투르판 / 무이 / 장액 / 천수 / 가옥관 / 유림굴 / 선선 등
* 출발문의 상담요망

T.02) 720-0111 bbstour@hanmail.net www.chamagodo.kr 담당 이규술 이사 010-5274-035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1, 룬비니빌딩 401호